

“기부의 가치... ‘사랑의 온도’ 100도까지 올려주세요”

‘희망 2025 나눔캠페인’ 내년 1월말까지 대장정
광주 51억2천만원·전남 113억9천만원 모금 목표

“올해 겨울에도 나눔과 연대의 정신, 소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온도를 올려주세요”

광주·전남 ‘희망 2025 나눔캠페인’이 62일 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광주·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일 5·18민주광장에서 ‘희망2025 나눔캠페인’ 출범식과 함께 내년 1월31일까지 집중 모금활동을 이어간다. ▶관련기사 3면

출범식에서는 성금 첫 기부, 차량 및 기타 배분금 전달식, 사랑의 온도탑 온도 올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버튼 누르기 퍼포먼스를 마련해 성공적인 캠페인을 기원했다.

첫 기부자로 기아오도랜드, 광주은행,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등 3개 기업·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지혜숲어린이집 원아들은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 전달을 통해 훈훈한 마음을 전했다.

“기부로 나를 가지있게, 기부로 광주를 가지있게”를 슬로건으로 내건 캠페인의 광주 목표액은 51억2천만원이다.

전남도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이날 도청 광장에서 이웃돕기 성금 모금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랑의 온도탑 제작식을 시작으로 ‘희망 2025 나눔캠페인’에 돌입했다.

“기부로 나를 가지있게, 기부로 전남을 가지있게”를 슬로건으로 내건 전남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 목표액 106억원보다 8% 늘어난 113억9천만원이다.

제작식은 김영록 지사의 ‘희망메시지 전달’로 시작해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첫 기부금 전달식과 나눔명문기업 가입식, 차량 제공, 복권기금사업, 월동난방비 지원 등 배분금 전달식, 사랑의 온도탑 올리기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이날 전남도의회 1천100만원,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3천만원, 전남개발공사 3억5천만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첫 기부를 실천해 나눔 열기를 달궜다.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 수온주는 1도씩 오른다. 목표액을 모두 채우면 100도를 달성하게 된다.

박철홍 광주공동모금회장은 “모두 힘을 합쳐 사랑의 온도를 뜨겁게 달궈 주길 바란다”며 “성금이 광주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에 희망의 기운이 넘칠 수 있도록 연대와 나눔의 마음을 모아 달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일 전남공동모금회장도 “나눔의 전통이 올해도 이어져 목표액 113억9천만원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랑의 온도



“연대·나눔의 마음 모으자”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기 위해 광주·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전개하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다. 2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등 내빈들이 온도탑 온도 올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위). 이날 전남도청 광장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등 참석자들이 모금 캠페인 시작 버튼을 누르고 있다. /김애리 기자·전남도 제공

타이 필필 끊기를 기대한다”고 적극적인 기부 참여를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경기 침체와 기후변화로 모두 힘든 시기에 취약계층에게는

더더욱 지역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며 “따뜻하고 소중한 마음이 모여 온도탑이 뜨겁게 끓어오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역 모금 참여는 방송 3사(KBS·MBC·KBC), 5개 자치구, 동 행정복지센터,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062-22-3566)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전남지역

은 시·군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참여하거나 전남 사랑의 열매 대표 계좌 입금, ARS 기부 등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변은진·양시원 기자

전남도-도교육청 학교급식비 분담 갈등 해소

도의회 예결위 심사 중단...도·시·군 40%-교육청 60% 극적 합의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 사이의 학교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 갈등이 극적으로 해소됐다.

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와 도교육청은 이날 무상급식을 위한 내년 학교 식품비 예산 분담 비율을 도·시·군 40%

0%, 도교육청 60%로 합의했다.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학교급식비 분담 비율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무기한 정회기로 결정했다.

내년 전남지역 학교 무상급식비 예산

은 1천61억원 규모다. 당초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도와 시·군이 780억원(47%)을, 교육청이 871억원(53%)을 분담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도와 시·군 30%, 도교육청 70% 분담률을 주장하며 반발하면서 전남도와 갈등을 빚었다.

전남도는 현물 지원이 이뤄지는 친환

경 우수 식재료 예산을 제외한 현금 분담률인 만큼 실제 분담률은 도와 시·군 47%, 도교육청 53%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협상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도와 시·군 40%, 교육청 60% 비율로 일단 2년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전남도는 내년부터 시·군 35%, 교육청 65% 적용하는 안을 내놓으며 합의에 실패했다.

두 기관은 시의회 예결위 정회 이후 회의를 진행한 끝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라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전남도와 시·군이 40%, 도교육청이 60%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나광국 도의회 예결위원장은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합의에 이른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가 전남 교육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나 위원장은 “무상급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양 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

다”고 주문했다.

한편, 도의회 예결위는 이날부터 5일까지 3일간 전남도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인 뒤, 9-10일엔 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재정 기자

Today	
유주운전 재범 적발해마다 늘어	6면
‘펫코노미시대’...맞춤형 돌봄	12면
‘K리그자존심’...광주, 16강간다	16면

전라남도 수산물과 함께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세요!